

추기경의 바보 같은 삶

우리들의 추기경, 김수환 스테파노께서 선종하셨다. 그를 애도하는 강추위 속의 긴 인파를 보도하면서 모든 신문과 방송은 사랑, 감사, 평화라는 보통 때는 쓰지 않던 희귀한 단어들을 앞부분에 커다란 글자로 닻새 내내 쓰기 시작했다. 긴장과 갈등, 폭력과 범죄 보도에 익숙해온 매스컴의 첫머리에 등장한 사랑, 감사 그리고 평화라는 메시지는 차라리 매스컴의 기적이라 부를만하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그간의 매스컴 속에 그만큼 희귀했기 때문이다. 추기경의 선종으로 나타난 사회 속의 긍정의 변화를 매스컴은 명동의 기적이라는 말로 불렀다. 평화는 내가 남에게 ‘밥’이 되어 줄 때 이루어진다는 그의 ‘저주는 철학’, 그의 화려한 이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난하고 청빈한 삶, 죽은 몸의 각막까지 떼어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고 간 희생과 헌신의 삶은 갈등과 투쟁, 증오와 미움, 집착과 탐욕에 찌든 우리들 모두에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자성의 기회를 갖게 했다. 그래서 긴 추모의 인파는 통회하며 고해의 차례를 기다리는 고백소 앞의 죄인들처럼 보이기도 했다.

추기경께서는 그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세계를 다시금 상기 시켜 주셨다. 나만을 위해 살던 세계에서 남을 위한 삶의 세계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해 주신 것이다.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의 장기기증자 수가 그 짧은 장례기간 중에 세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눈뜨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리더십과 경쟁력을 입에 달고 산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추어야하고,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나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누누이 외쳐대왔다. 개인적 출세와 경제적 부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리더십과 경쟁력에 치우친 나머지, 도덕과 남을 위한 배려는 잊고 살았다. 그런 배려는 추기경의 말씀대로 ‘바보 같은 삶’으로 치부하며 살아 온 게 우리다. 종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명동에 모여든 수십만의 남녀노소 추모인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고,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본다.

추기경은 권력과 부로 사람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다. 정직했고, 약속을 잘 지켰고, 주어진 책임을 다했고, 용서했고, 남을 존경하고 배려했다. 그것이 그 주변에 사람을 끌어당기게 했다. 그가 억지로 당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끌려왔다. 권력과 부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도덕과 배려의 카리스마가 그의 리더십의 본질이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희구하는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가 추구한 경쟁력은 부의 성장과 축적을 위한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도덕과 배려를 상실한 경쟁력은 오히려 파괴력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국가가 정체되고 있음을 안다. 영어, 과학, 창의력 있는 인재와 기업을 키워서 성장의 경쟁력을 키우기도 해야 하지만, 도덕과 배려의 경쟁력을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키우지 않으면, 성장의 경쟁력은 파괴의 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일생은 남에 대한 배려가 진정한 경쟁력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리더십과 경쟁력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문용린 요한 보스코 | 서울대 교수

사순절 특별 서한(요약)

사순절에 이웃선교에 힘써 주십시오.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영접하여 새 삶을 시작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으로 가톨릭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장기 기증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가톨릭 서점가에 비신자들의 발걸음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른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영원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은총의 사순절입니다. 회개의 때이고, 절제의 시기

입니다. 아끼고 절제함으로 얻은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시기입니다.

큰 나눔은 구원의 나눔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교회 존재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닦아 놓은 복음화의 기초 위에, 또한 이미 이루어진 예비선교의 바탕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새 복음화의 건물을 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봄과 함께 맞이하는 이 은총의 시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교의 꽃으로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천주교 인천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6일(금) 오전 11시에 사목회장, 부회장, 사무봉사자와 함께 해밀턴 교구장님이신 토너스 주교님을 뵙고 왔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우리 키치너-워털루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탄생예고축일인 **3월 25일**자로 본당 승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당의 정식 명칭은 “**St. Paul Chung Parish**” 가 될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부르는 명칭으로는 “**K.W한인천주교회**” 이고 주보성인은 “**성 정하상 바오로**” 입니다. 소성당에 안치할 감실도 약속해 주셨고, 14처도 정성스럽게 축성해 주셨습니다. 본당승격 감사미사는 주보성인 축일인 **9월 20일(주일)**에 견진성사를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교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일치와 성장에 기뻐하시면서 다민족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의 성전도 없고 신자수도 적지만 “**St. Paul Chung Parish**” 라는 명칭을 주신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견하신 듯합니다. 2009년도 사목지침인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를 충실히 실천하여 튼튼한 반석 위에 주님 보시기 좋은 신앙공동체를 이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쉬는 교우를 위한 기도

저희를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서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 사랑과 은총에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생활과 기도 속에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들이 하루속히 당신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과 형제애를 보이게 하소서.

아울러 저희도 당신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고, 저희 삶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이들이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소서.

하늘에 오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세 번)

본 당 소 식

◎ 재무평의회 위원 임명

교회법 제 537조와 제 1280조에 따라
신자들의 정성인 봉헌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재무평의회를 신설합니다.

위원장 : 윤명원(요셉)
사목회 부회장(당연직)
위 원 : 유무열(레오비노)
사목회 재정분과장(당연직)
위 원 : 이상희(세라피아)
위 원 : 이정숙(클라우디아)

◎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14개 사건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4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특별한 시기인 만큼 시간 엄수하시고 많은 신자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순 제2주일(3월8일) 진행 - 박재영
워터루1구역장

사순 제3주일(3월15일) 진행 - 이민
브랜포드구역장

사순 제4주일(3월22일) 진행 - 이동기
워터루2구역장

각 구역장은 구역별로 행렬참가자(십자가 1명,
촛대 2명)를 미리 선정해 주시고 신자들의 참여
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봉사자 신청받습니다.

주일 학교에 봉사자로 일해주실 교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동원 라자로 ☎ 519 220 0721

◎ 구역모임 안내

▶ **Waterloo 1구역** 3월 14일 오후 6시
김근호 형제님댁

▶ **Cambridge 구역** 3월 21일 오후 6시
윤명원 형제님댁

◎ 성전건립기금 마련 컴퓨터 점검 서비스 안내

일 시: 3월 8일/15일/22일/29일

정오 12시 ~ 오후 3시 / 교육관

비 용 : 바이러스 및 시스템 점검 \$ 30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실비

문 의 : 한택중(막시모) ☎ 519 883 8488

✉ tj1234@catholic.or.kr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문하신 버섯을 천교시간에 찾아가세요.

문의 : 한재희 (테레사)

◎ 예비자 교리 안내

주일미사와 천교식사를 마친 후 교육관으로
이동하여 1시간정도 합니다. 예비자가 아니더라도
교리에 관심 있는 교우분도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 박재영(바오로) ☎ 519 747 4981

◎ 판공성사 안내

사순시기 동안 고백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합니다.

온타리오 합동 판공성사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로고스회(성경공부) 모임

3월 11(수) 10시 미사 후

3월 20(금) 오후 8시 미사 후

◎ 치유와 은총의 시간

일시 : 3월 10일(화) ~ 11일(수) 오후 6시~10시

장소 : 토론토 한맘성당

◎ 사제관, 소성당을 찾아오는 교우는 반드시
St. Antony Daniel성당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70.00
교 무 금	: \$ 0
성전건립	: \$ 305.00
합 계	: \$ 107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 lucasmuse@korea.com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여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12호

2009. 3. 8.

사순 제 2 주일

미 사 전 레

해 설 노재현 차주 해설 이 민

화 답 송 (성가 362)

◎ 산 이들의 땅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복음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
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
어라.

성 가

입 당 (115) 수난 기약 다다르니
봉 헌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 체 (182) 신묘하온 이 영적
퇴 장 (72) 다볼 산의 예수

독	서
3월 8일 장명길	장용경
3월 15일 이상재	이향숙
3월 22일 이 민	이할란

봉	헌
3월 8일 윤명원	윤명희
3월 15일 장명길	장용경
3월 22일 이상재	이향숙

복	사
3월 8일 박규환	이수민
3월 15일 류지현	김건우
3월 22일 구한형	이현재

친	교
3월 8일 백함팀	3월 15일 신비팀
3월 22일 환희팀	3월 29일 영광팀